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 (2022. 12. 30): 273-291
pISSN 1229-781X / eISSN 2671-5759 https://doi.or.kr/10.17968/jcek.2022..72.013

A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ristian school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SD)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

홍성수(Sungsoo Hong)

Abstract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great development to the whole human history by the improvement of productive capacity. However, high speed development absorbed just on growth gave rise to resource depletion attack and economical inequality. If it might be neglected human society will meet unsustainable development situation. So UN has made effort to make sustainable development(SD) through global band together. SD concept considers it important to promote current development not giving damage to next generation's development. Then economy,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harmonized and it demands governance for its actualization. SD gets to be a matter of common interest in education. New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ake African poor countries that are in blind spots of development advance toward gradual sustainable development by supporting programmes to these countries. Thu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SDE) is for future. It has an aim to give suitable education for all people who are all over the world. SDE tries to make health society and successful economical life for all. The concept of SD is found in the essential aims of Christian school and Christian education seeking justice and shalom. Christians are called as transformers for servant mission giving recover in corrupt world. Firstly, Christian school practise this mission making students think on Christian perspectives. Then it makes students serve for environment, economical fairness, social integration with servant mission. Also Christian school has a mission to seek both justice and shalom as a praxis beyond the intellectual dimension of education until fulfilling justice and shalom for all who are all over the world. Thus it can be that Christian school is an importan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at it is always to seek justice and shalom through restoration on the Christian educational perspective.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Christian, Christian school, Justice and shalom, Mission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Sungsoo Hong, Assistant Professor, Kosin University, yamhss@naver.com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SD)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 *

A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ristian school

홍성수(Sungsoo Hong)**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이라는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환경, 사회통합이 적절히 달성되어야 하며, 이것의 현실화를 위하여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란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모든 곳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여 건강한 사회와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향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여 기독교학교에서 지향하는 성경적 샬롬 개념이 이러한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대비 분석하고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출현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의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의를 다룬다. 이를 토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샬롬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대비하면서 이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는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목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을 향한 봉사적 사명을 부여 받는다. 기독교학교는 먼저 지적 차원에서 학생들로 기독교적 사고를 하게 하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환경과 경제적 공평과 사회통합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또한 기독교학교는 지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번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의와 샬롬을 지향하는 실천적 차원을 사명으로 삼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회복을 통해 정의와 샬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하는 주요한 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학교는 모든 곳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된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 주제어 》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그리스도인, 기독교학교, 정의와 샬롬, 사명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2년 11월 12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임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조교수, yamhss@naver.com

I. 들어가는 말

구시대에는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명치 않았다.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가 되풀이되는 지역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이 언제까지나 반복된다고 여겼다. 일천 년 전 사람들은 미래의 발전에 대해 별로 생각할 필요를 갖지 못하였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농사 문화가 되풀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제도 안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그러한 제도 안에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 막연히 예상할 뿐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발전 속도의 가속화는 미래의 예측의 필요와 함께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례로 21세기 변화의 속도는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Harari, 2018, 389-391).

산업혁명 이후 막대한 생산력을 갖게 되면서 인류는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자원고갈 및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는 심화 되었고, 거대한 부를 창출하였으나 주류층과 소외층 간 상대적 격차 심화로 불평등 문제가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불거졌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 현재까지 인류 사회가 경험해 온 발전은 도리어 발전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고, 심한 경우 파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류 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사회통합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조화롭게 대응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논의하고, 교육적 적용을 다루면서 이것의 기독교교육적 접근과 기독교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과 의미

1.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출현과 확산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용어는 18세기 이후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이 인류 사회 전반에 발전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결과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주도자이며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로 등장한 것이다(정대연, 2005, 114-115).

2002년 UN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스톡홀름(1972)과 리우(Rio de Janeiro, 1992)의 연장선에서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하였다. 리우 회의로부터 20년 후인 2012년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세 가지 중핵 요소 곧 경제, 사회, 환경을 망라하는 총체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인류의 관심사이지만, 이것과 함께 사회통합과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두었다. 곧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을 강조하는 것과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자원 개발을 할 것을 강조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적 생태계 보전 등 세 가지 주요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때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achs, 28-29).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적용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욕구(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에 맞추는 발전”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Gro Harlem Brundtland, 1987, 41).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의장인 할렘 브룬틀란의 정의를 고려해 본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에는 미래 세대가 발전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현재 필요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 여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적절한 거버넌스 등과 같이 네 가지 영역이 조화롭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경제 성장 혹은 번영은 인류의 지속적 관심사이며 추구하는 목표이다. 1750년 이후 산업혁명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때부터 이 기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매디슨의 추산에 따르면, 서기 1년 로마 제국 시기 세계 인구는 2억 2,500만에서, 천년이 지난 1,000년에 2억 6,700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1,820년경 10억 명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110년 후인 1930년경 20억 명에 도달하였다. 생산비율과 사망비율이 고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향후 2,040년경 세계 인구는 9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증가 배후에는 식량 확보, 산업화 등이 작동하였다 할 수 있다. 이처럼 1750년에서 180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인구성장과 맞물려 작동하였다. 1인당 소득과 인구 증가가 상생하여 세계 전체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Sachs, 2021, 43-46).

둘째로, 글로벌 사회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상호작용하는 현 시대에서 사회 통합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다. 글로벌 사회는 경제성장과 얽혀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부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이다. 급속도의 경제성장은 종종 소득 불균형을 초래한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므로 1인당 소득도 다소간 상승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소득의 최상층부에 대부분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일례로 1970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4였는데, 2013년에는 0.48로 상승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은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평등한 상태를, 1은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Sachs, 2021, 273).

삭스(Sachs, 2021, 273)에 따르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교육, 기계화, 정치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수준이 문제가 된다. 기계화는 소득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자동화 내지 기계화로 인하여 임금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을 소유하는 층은 빈곤층이 아니라 부유층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계속 될수록 소득 불균형은 더 심화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인데, 정치 시스템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없이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세계 생산량을 산업혁명 초기 대비 240배에서 1,000배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급증하는 인구와 인간의 경제 활동 증가는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Sachs, 2021, 58). 인류는 산업혁명 이래 최근까지 200여년 남짓 지나치게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자원을 개발하므로 인간 이외 다른 종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세웠다. 그 결과 이른바 '지구위험한계선'을 넘어설 우려를 갖게 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기후 변화, 바다의 산성화, 성층권의 오존 고갈, 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멸종 등이 인류가 맞이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Sachs, 2021, 64-65).

넷째로, 앞서 열거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아우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거버넌스이다. 현대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특정 국가 혹은 기업, 학교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일단 경제 활동의 주체가 다국적기업들로 변화되면서 그 규모가 대단히 거대해졌다. 이러한 거대화는 현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일개 국가나 특정 기관으로만 한정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의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비되는 용어로 '여느 때와 별반 차이 없는'(business as usual, BAU)이란 용어가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SD)으로 향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

면에 더하여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힘겨운 과제이다. 그런데 'BAU'에 머무르기를 고수한다면 발전이 계속 될 수는 있지만, 불평등과 환경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achs, 2021, 66-68).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인간 욕구에 반하여서 경제발전의 종식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편한 심리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들를 방치할 수는 없다. 현 시대는 SD와 BAU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기구 혹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된다. 이제 이 문제를 교육적인 영역에서 다루어 보고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개괄적으로나마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I. 교육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적용

1. 사회통합의 문제

2015년 9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로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주요 목표 하나는 사회통합 성격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 목표 안에는 2030년까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빈곤과 기아 종식,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평화와 공정과 포용의 사회 건설 및 인권 보호와 성평등 촉진 등이 포함되었다(환경부, 2018, 3항, 6). 이 문서는 21세기 진입 시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국들의 형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한 목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충실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하였다(환경부, 2018, 16항, 14).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의 장벽으로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차별를 위시하여 민족, 종교, 인종, 성별, 계급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다(Sachs, 2021, 251-252). 사회통합에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길 하나는 평등과 이것의 권리를 성찰하는 윤리학적 방법이다. 본 논의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에서 정의론과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인권 철학 등에서 주장하는 불평등 해소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2.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은 역설적으로 더 부유한 사회가 될수록 심화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정의에 대한 가치를 도외시한 채 성장과 발전만을 고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적 분배가 발생하여 사회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며 더 나아가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양승준, 2019). 교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보편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신분적으로 사회 이동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빈곤층 자녀들이 무상교육 혜택으로 성장한 후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 교육은 불편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다. 비록 근대국가 등장 이후 국민교육 내지 보편교육이 당연시 되어 왔고, 전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교육 수혜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개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는 자칫하면 국가가 개인의 자본과 부를 탈취해 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도덕은 자유인데, 당사자의 자유로운 기부에 반하여 부유층에 대한 높은 과세를 통하여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 곧 역차별이란 견해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에게는 부의 재분배가 평등을 달성하는 당연한 방법으로 환영 될 수 있으나,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은 자유 시민에 대한 불법한 침해로 생각될 수도 있다(Sachs, 2021, 257-258).

이와 같은 분배 문제에 대하여 존 롤스(Rawls, 2005, 53-55)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토대로 해법을 시도하였다. 이른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상정한다면 사람들은 최악의 극단적 계층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란 가정이다. 달리 말하면 개인이 자본을 가진 위치에 있을지 혹은 반대로 소외층 위치에 놓일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초기 상태에서 운수나 사회적 여건 등 어떤 것도 배제된 상태에서 합리적 이성적 원칙에 따라 평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유지상주의에 기초한 자유자본주의 체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위치를 가장 극단적으로 몰아 세우는 상상이기에 무지의 베일을 보편적 이론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Sachs, 2021, 256).

한편 공리주의자들은 롤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고소득자의 부를 강탈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역차별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극소수 부유층의 막대한 부를 다수의 빈곤층에게 분배할 경우 문제가 생

긴다고 본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의 부가 골고루 분배된다는 점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고소득자로부터 강요된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층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수의 빈곤층은 생산적 일들을 별로 하지도 않고 복지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우려도 등장한다(Sachs, 2021, 257-258).

삭스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 제도가 자유에 대한 침해라거나 경제 규모의 축소 내지는 빈곤층의 생산성 저하와 복지 의존적 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극단적 비관이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는 소외층, 빈곤층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얻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들의 건강, 기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적절한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고, 불균형으로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보다는 더욱 건강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다(Sachs, 2021, 258).

불평등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은 인권이다. 유엔은 인권 접근을 선호하는데, 이유는 인권적 접근이란 전 인류의 기본적 요구(needs)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해도 최대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해도 점진적으로라도 기본 요구 충족을 통한 최소한의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은 보장해야 한다는 이 점에서 UN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류의 기본적 요구를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ods)라고 일컫는다(Sachs, 2021, 260).

가치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마치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만약 자본을 가진 자가 우수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질이 낮은 교육을 받거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자유시장을 표방했던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서 발견된다. 스미스(Smith, 2011, 808-809)는 보편적 교육이 소수만을 위한 교육보다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일반 민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 지을 때 가치재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세 영역에서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여건 제공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은 주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역시 필수적인 가치재로 간주될 수 있다(Sachs, 2021, 261). 의료 가치재에 관하여는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세계적인 감염병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이를 넘어서는 범세계인 협력으로 이에 대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의료과학적 대응 역시 가치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2000년 9월 UN은 189개국 리더들 회합에서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서명하였다. 이 규약은 2015년까지 도달할 목표로 여덟 개 영역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육과 같은 가치재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덟 개의 항에서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에서 극도의 빈곤을 근절하는 목표의 구체적 예시로 매일 1달러 조차 수입을 얻지 못하는 빈곤층 비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것, 두 번째 항에서는 전 세계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소년 소녀들이 완전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장한다는 것, 일곱 번째 항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극빈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 등이다(https://www.ndi.org). 이런 예는 새천년개발 목표의 중심에 인권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이고, 불평등의 문제를 전세계적인 이슈로 인지하면서 사회통합을 향해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청됨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간략히 말하면 미래를 위한 교육이며 모든 곳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계획, 정책 개발, 프로그램 실행, 재정, 교육과정, 교수 학습, 자산, 행정 등을 망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은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관된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UNESCO, 2012, 10-12).

1) 가치재와 인적 투자로서의 교육

종래에 투자는 대개 물적 자산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에는 그보다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처럼 투자를 인적 자원의 측면으로 생각하게 될 때 교육은 중요한 필수 방편이 된다. 교육을 배제한 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투자 곧 인간을 개발한다는 사상 근저에는 개개인의 능력과 건강은 곧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능케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각 개인이 가능한 한 차별이 없이 질 높은 환경적, 의료적,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Sachs, 2021, 286).

인간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고려점은 인간의 생애 주기(life cycle)이다. 인간의 유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서 각 단계별로 적합한 교육과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아 시기에 맞는 교육과 의료 혜택 제공은 개인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 시켜 건강한 성장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보편적으로 실천될 때 사회 전체에 대한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수록 공식적인 교육의 주기는 초등교육 이전으로 그 시작점이 빨라지는 동시에 종료 지점은 더욱 늦추어진다. 즉 일반적인 교육의 종료 시점은 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까지 연장되는 것이다(Sachs, 2021, 286-287).

2)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사회적 배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들로 발생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종종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데, 이들은 비취약계층의 무관심 내지 무감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곤 한다. 비취약계층에 비해 이들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종종 심각한 위기에 놓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류삼준, 2021). 예컨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는 사회 주류층과 공존과 공생을 해야 할 이웃임에도 이들이 배제된다면 이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을 것이다(김도일, 2020).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교육은 그 간 사회적으로 배제 되어 온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사회적 배제는 이것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성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구조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특정 개인이 방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곳의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교육 받을 기회들이 특정 부류들에게는 배제된다면 이는 불평등과 불이익이 되고, 이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Giddens & Sutton, 2016, 575-576).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교육은 문맹률 퇴치에 기여해 왔고, 아울러 아동 노동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거듭 확인되어 왔다. 앤서니 기든스 등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1990년대에 초등학교 입학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중등교육과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과 빈민국의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선진국이 아닌 곳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가족의 빈곤, 교육 시설의 부족, 인종적 소수집단 등의 이유로 강제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아동의 노동은 아동 노동 착취라는 가혹한 문제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배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내지는 범세계적 기구의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Giddens & Sutton, 2016, 614-617).

또한 고등교육의 공식 기관인 대학교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세기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등교육의 대표 기관인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류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Sachs, 2021, 307-310).

이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개념으로 1980년 이래 전(全)세계적으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개념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사회 통합의 걸림돌에 대응해 왔다. 21세기에 이르러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개념을 강조하고 모든 곳 모든 이들을 향하여 질 높은 교육 제공과 사회 변혁을 도모하므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다음 항에서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한 후 기독교학교에서 어떻게 이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IV. 기독교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

1.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창세기 첫 장에 등장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영원성이다. 죄가 유입되기 전까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드러내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첫 사람은 에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의도되었다. 이를 문화명령 차원에서 접근한다(창 1:26). 여기서 영원성과 완전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영원성은 인류와 세상 역사의 지속적인 면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완전성은 인류 세상 역사가 부단한 발전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개념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이 무한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슐로스버그(Schlossberg, 1990, 4-7)는 에드워드 깁슨(Edward Gibbon)이 인류 역사의 문명들을 출현, 쇠퇴, 소멸과 같은 유비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경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성경은 심판 개념을 사용한다. 즉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서 이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불순종인지로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순종은 우상숭배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이 추종하는 자연, 돈, 인간, 권력, 역사 내지는 사회 정치 체제 등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발전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극단적 인도주의를 성찰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 슐로스버그(Schlossberg, 1990, 52, 87)에 따르면, 극단적 인도주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죽이는 권리를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므로 낙태, 영아 살해, 안락사를 옹호하는 것이다. 인도주의는 건강을 회복할 방도가 없는 이들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게 삶을 연장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간주한다. 오히려 축복 된 죽음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회복 불가능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삶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 된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존 연장을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소모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일을 위해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점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인도주의는 인간 자신이 생명과 죽음의 결정권을 가지는 신이라고 은연중에 주장한다. 그렇지만 신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간이란 실상은 소수에 해당할 뿐이고, 많은 이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실패한 신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네 개의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해명한다. (1) 나는 누구인가(인간의 본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2) 나는 어디에 있는가(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3)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애가 무엇인가), (4) 치료책은 무엇인가(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등이다(Walsh & Middleton, 1984, 35). 이런 일련의 관점은 흔히 잘 알려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Bavinck, 1854-1921, 2020, 115-116)는 “기독교의 본질은 성부의 창조,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의 재창조이다.”라고 하면서 피조계의 역사 이해를 이와 같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 위에 보았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성경과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청지기의 위치에서 변혁자 내지는 개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

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타락 이후 구속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런 시각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보여 온 인간의 과오에 주목하게 한다. 과학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발전은 긍정적인 면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에만 집착하는 발전은 생태계로 균형을 잃게 만들고 급기야 다음을 살아갈 세대에게 불가능한 미래를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은 변혁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는 곧 청지기답게 환경,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회복을 가능케 하는 봉사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회퍼(Bonhoeffer, 1906-1945, 2013, 306 & 313-317)는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풀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그의 거처를 위치시키므로 세상을 위한 봉사자의 사명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비범성에서 만약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걸림이 된다고 하면 세상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부가 되어 세상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이 점에서 제자는 비범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되 세상성을 나타내는 자이다. 이렇듯 비범성과 세상성을 함께 간직한 제자는 종말의 때를 대망하며 그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일상을 채워간다.

본회퍼의 이와 같은 제자됨의 이중적 특징을 청지기적 인간과 연결할 때 이것은 변혁자로서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혁자 인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다. 유재경(2018)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본회퍼의 이와 같은 통찰로부터 변혁자의 관점에서 풀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현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 구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신앙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원론적으로 취급되는 데다가 개인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이탈되어 사적인 영역으로 갇혀버린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적 영역에 갇힌 신앙으로 머물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얻은 자유를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내어주는 자유 곧 '타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 지향성은 나 중심의 이기성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중지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래 공감 능력을 기초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이향순, 20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범성과 세상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일종의 사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동시에 세상 안에 자기를 위치시키면서 타자를 향하여 봉사하므로 여전히 공적 영역을 수행하는 이중적인 특정을 지닌 존재 곧 변혁자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유

재경, 2018, 105-108).

그리스도의 제자를 변혁자로 일컫는 이유는 청지기 사명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명한 책임을 갖고 실천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룸(Groome, 1999, 50)은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인 회개(metanoia)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내적인 회심은 언제나 이웃 안에 자기를 위치시키면서 부단하게 자신은 물론 그들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실천적 신앙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회심은 사적인 영역에 갇힌 개인의 신앙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며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평등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총체적인 면인 경제적, 사회통합적, 환경적 차원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실천과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기독교학교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적용할지 생각해 본다.

3. 기독교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적용

1) 지성적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현대의 급격한 성장은 학교교육의 전문화라는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는 종종 서구 교육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도슨(Dawson, 1961, 119-120)은 현대 교육이 고대 인문주의 교육의 장점을 상실하는 대가로 학생들의 장래 경력에 유리함을 선사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성 함양을 얻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대 교육은 문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열의와 진지함을 갖지 못한 채 파편화된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문주의 우상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교육은 전문화를 넘어서 전체적이고 공통된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립학교가 가진 전문화에 대응하여 대안적 성격을 갖는 기독교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독교학교가 대안학교의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위기 의식이 점증된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공립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공립학교 자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학교의 공적 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에 더하여 기독교학교의 성격과 기능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볼트(Bolt, 2006, 99)는 그 이유로 공교육만으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만족할만한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과 기독교학교의 존재 자체가 현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든다.

기독교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중 하나는 기독교적 지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학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는다. 기독교적 사고는 기독교세계관으로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청지기적 사명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므로 다스리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볼트(Bolt, 2006, 141-142)는 이에 대해 현실적 예시를 열거한다. 예컨대 청지기적 사명을 실천하는 인간은 피조세계를 탐욕스럽게 남용할 대상으로 그래서 자원을 고갈시켜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돌보고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청지기적 관점은 곧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일깨우며 이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열어가게 한다. 또한 기독교적 재물관을 가진 인간은 청지기답게 탐욕을 제어하고 정의와 공평 그리고 자선을 중심 가치로 삼고 다함께 부유하게 되는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경제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에 저항하면서 보다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유재덕, 2021). 이로써 기독교학교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과 바른 경제관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찾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2)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는 기독교학교

샬롬은 누구나 추구하는 이상향이며 목표점이다. 기독교학교 역시 샬롬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샬롬은 평화이다. 평화는 갈등이나 투쟁 혹은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즉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국가간 민족간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간 숱한 갈등과 분쟁이 점철되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평화는 언제나 원하는 것이지만 영구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모두가 합의하고 기꺼이 수긍할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샬롬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한다(김성수, 2005).

월터스토프(Wolterstorff, 2017, 168)는 샬롬을 관계의 문제로 보면서 이것은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사랑과 정의는 대립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들은 올바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샬롬은 단지 정의로운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어우러진 관계이며, 이에서 더 나아가 샬롬은 번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과의, 동료와의, 그리고 세상과의 등과 같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샬롬은 지속적인 번영을 낳는다. 물론 이처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오려면 깨어진 관계로 자리하게 된 상처와 고통이 충분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Wolterstorff, 2017, 178).

이처럼 샬롬의 의미를 관계를 기초하여 번영을 낳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이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연결된다. 지구상에 누적된 환경 문제는 번영을 가로막기 때문에 샬롬을 보장하지 못한다. 경제적 불평등 역시 경제적 우위를 점유하는 쪽은 번영을 얻을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쪽에 서는 번영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샬롬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곳 모든 이들을 위한 번영은 샬롬을 말하며, 이는 결국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샬롬이라는 주제는 이것이 단지 인지적 지성적 차원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고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실제적인 것에서 찾게 한다. 월터스토프(1980, 13-14)는 기독교학교가 단지 기독교적 지성만 가르치는 것에 머무는 것을 경계한다. 기독교학교가 학생들을 단순히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게만 가르치면 저절로 기독교적 존재 방식이 해결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월터스토프(2014, 74-81)는 오랜 인간 역사의 상처를 주목하면서 샬롬이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의 핵심 사명이라 지적한다. 기독교학교가 샬롬을 추구할 때에만 상처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그럴 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교는 정의와 샬롬을 실천하므로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이다. 먼저는 기독교적 지성 차원에서 다음으로는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샬롬을 실현하므로 기독교적 삶의 차원에서 제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듯 기독교학교가 모든 곳 모든 이들을 향하여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의도하며 노력할 때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학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이 사회에 자리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며 이것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이것은 성장에만 집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공평과 정의는 물론 미래 다음 세대의 발전을 생각하는 책임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개념은 지적인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폭넓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비록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가를 초월한 전세계적 연대가 결성되어 이를 추구하여 왔다.

성경은 첫 창조로부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성을 예시한다. 물론 타락으로

인하여 한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타락 이후 회복과 완성에 이르는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샬롬에서 발견된다. 샬롬은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실현되는 평화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참다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향점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범성과 세상성을 동시에 가진 이중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또는 세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는 변혁자로 부름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시각으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샬롬을 추구하는 변혁자의 삶을 지향하므로 경제와 환경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고한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교육의 주요 기관으로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이와 같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지성을 갖게 하므로 변혁자의 삶을 일깨운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는 지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의와 샬롬의 실현을 위한 책임 곧 삶의 차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이 사회에 정의와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실천하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학교에 맡겨진 사명이다.

참 고 문 헌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Kim, D. I. (2005).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김성수 (2005).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즐김. **고신신학, 7,** 51-78.

[Kim, S. S. (2005). Peace(shalom): harmony and enjoyment in his/her relationship with God, with self, with fellows, with creation(nature). *Kosin Theological Journal, 7*, 51-78.]

류삼준 (2021).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339-375.]

양승준 (2019). 신자유주의 시대 회중의 '경제적 성화 교육'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73-98.

[Yang, S. J. (2019). A study on the economical sanctification education of the congregation in neoliberal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73-98.]

유재경 (2018).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세계시민교육.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You, J. K.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Chritian world-view. *Christian Society Ethics, 42*, 95-123.]

유재덕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8,** 11-40.

[Yu, J. D (2021).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ost coronavirus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11-40.]

이향순 (2019).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405-435.

[Lee, H. S. (2019). A study on other-oriented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empath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405-435.]

정대연 (2005).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파주: 집문당.

[Jung, D. Y. (2005). *Environmental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ju: Jipmundang.]

조성화 외 (2016).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서울: 북스힐.

[Jo, S. H. et als. (2016). *Meeting of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oul: Bookshill.]

환경부 (2018). **세상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avinck, H. (2020). **찬송의 제사**. 박재은 역. 군포: 도서출판다함. (원저 1992 출판)

[Bavinck, H. (2020). *The Sacrifice of praise: meditation before and after receiving access to the table of the Lord*. trans. Translator: Park, J, E. Gunpo: Daham publishing Co. (Original published in 1992)]

Bolt, J. (2006). **이야기가 있는 학교**. 이정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원저 1993 출판)

[Bolt, J. (2006).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Translator: Lee, J. S. Seoul: IVP. (Original published in 1993)]

Bonhoeffer, D. (2013).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손규태,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7 출판)

[Bonhoeffer, Dietrich (2013). *Nachfolge*. Translator: Son, G. T. & Lee, S. G.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published in 1987)]

Brundtland, Gro Harlem an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1987.

Dawson, C. (1961). *The crisis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Sheed and Ward.

Giddens, A. & Sutton, P. W. (2016). **현대사회학**(7판). Sociology. 김미숙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저 2013 출판)

[Giddens, A. & Sutton, P. W. (2016). *Sociology*(7th). Translator: Kim, M. S. et als. Seoul: Eulyoo Publishing Co. (Original published in 2013)]

Groome, T. H. (1999).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Harari, Y. N.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파주: 김영사. (원저 2018 출판)

[Harari, Y. N.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Translator: Jun, B. G. Pajoo: Kimyoungsa. (Original published in 2018)]

Munro, D. A. (director general) (1980). *World conservation strategy: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UCN-UNEP-WWF.

Rawls, J. (2005). **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이학사. (원저 1999 출판)

[Rawls, J. (2005). *A theory of justice*. Translator: Hwang, K. S. Seoul: Leehaksa. (Original published in 1999)]

Sachs, Jeffrey D. (202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홍성완 역. 파주: 21세기북스. (원저 2015 출판)

[Sachs, J. D. (2021).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lator: Hong, S. H. Pajoo: 21st century books. (Original published in 2015)]

Schlossberg, H. (1990). *Idols for destruction: the conflict of Christian faith and American culture.* Illinois: Crossway books.

Smith, A. (2011). **국부론**. 유인호 역. 서울: 동서문화사. (원저 1791 출판)

[Smith, A. (2011).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Seoul: Dongseomunhwasa. (Original published in 1791)]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4 September 2002).

UNESCO (2012). *Shaping the education of tomorrow: 2012 report on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bridged. Paris: UNESCO.

Walsh, B. J. & Middleton, J. R.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Wolterstorff, N. (2017). **하나님의 정의**. 배덕만 역. 서울: 복있는사람. (원저 2013 출판)

[Wolterstorff, N. (2017). *Journey toward justice*. Translator: Bae, D. M. Seoul: Bokitneunsaram. (Original published in 2013)]

Wolterstorff, N.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CSI Publications and Erdmans.

Wolterstorff, N. (2014). **샬롬을 위한 교육**. 신영순, 이민경, 이현민 역. 서울: SFC출판부. (원저 2004 출판)

[Wolterstorff, N. (2014). *Educating for shalom*. Seoul: SFC Publishing Co. (Original published in 2004)]

https://www.ndi.org/sites/default/files/Handout%207%20-%20Millennium%20Development%20Goals.pdf (2022.10.8. 20:00 접속)